쓴 채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

코 스 오륙도스카이워크~이기대 자연마당~농바위~치마바위~이기대 어울마당-옛 구리광산~이기대 동생말 **약 3시간 소요**

가는 법 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 3번 출구→시내버스 24, 27, 131번 승차→오륙도스카이워크 정류장 하차

*4~12월에는 동생말 전망대에서 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까지 남구 마을버스 2번을 운행한다.

❶ '함께 걷는 부산 길' 은 시민·해설사·기자가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다양한 길을 걸으며 길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는 열린 공간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매월 10일까지 다이내믹부산 편집부(051-888-1291~8) 또는 이메일(naeun11@korea.kr)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개별로 연락드립니다.
❷ 5월호의 걷기 주제는 '동래읍성길' .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 무료. 물·간식 등은 개별 지참해야 하며, 우천 시 날짜 변경 가능.
❸ 남구는 오륙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오륙도 주변과 이기대 해안산책로 구간에 문화관광해설을 운영합니다. 방문 10일 전까지 전화 신청. 남구청 문화체육과 (051-607-4821~3)

숨겨진 이정표 찾아라

농바위·치마바위

이기대 해안산책로를 좀 더 재미있게 걷는 방법이 있다. 농바위·치마바위 등 기암괴석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기대는 태종대·낙동강 하구·몰운대 등과 더불어 국가지질공원이다. 해안가를 따라 발달한 해안절벽과 파도와 바람에 침식돼 생긴 파식대지가 장관을 이룬다.

첫 번째 만날 곳은 '농바위' . 농을 올려놓은 듯 두 개의 바위가 포개져 있어 가장 알아보기 쉽다. 농바위의 유래는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제주를 떠난 해녀들이 부산에 자리잡아 이기대와 영도 등에서 활동했는데, 서로의 연락을 위해 이정표에 이름을 붙이던 중 농바위라고 이름 지었다고 전해진다. 농바위는 부처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과 닮았다 해서 '돌부처상 바위' 또는 '돌부처 바위' 라고도 불린다. 고기잡이 나간 배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전설이 깃들어 있다.

다음 찾아볼 곳은 '치마바위' . 한복 치마를 펼친 모습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다 쪽에서 바라본 모습이라 찾기가 쉽지 않다. 대신 발견한 것은 해안가 곳곳에 자리한 초소. 이기대는 해상 간첩 침투를 막기 위한 군사지역으로 오랫동안 일반 시민의 출입이 금지됐다. 지난 1993년에야 민간에 개방됐으며 2005년부터 산책로를 조성해 오늘날 부산을 대표하는 산책로가 됐다. 아직 간간이 남아있는 초소와 철책이 이곳이 군사지역이었음을 말해준다.

농을 닮은 '농바위' . 부처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과 닮았다 해서 '돌부처상 바위' 또는 '돌부처 바위' 라고도 불린다.

천만 관객 영화 '해운대' 촬영지

이기대 어울마당

나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반갑게도 제법 넓은 평지 '이기대 어울마당' 이 나타난다. 매년 가을 불꽃축제와 새해 해맞이를 감상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는다. 천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 '해운대' 에 어울마당에서 바라본 야경이 등장하며 더 유명해졌다. 바다를 마주한 어울마당 한쪽 끝에는 '영화 해운대 촬영장소' 라는 표지판도 마련돼 있다. 어울마당은 주차장과 가까워, 차를 타고 와 잠시 소풍을 즐기는 시민이 많다. 산길이 부담스럽다면 이 코스를 선택해도 좋겠다.

천만관객영화 '해운대' 촬영지인 이기대 어울마당. 모처럼의 나들이에 아이들은 신이 났다.

어울마당을 지나 다시 여정을 시작했다. 동생말이 가까워지며 마음과 발걸음이 함께 가벼워진다. 이번에 만날 곳은 옛 구리광산 터다. 일제강점기 이기대 일대에는 5개의 구리광산 갱도가 있었다. 표지판이 있는 곳은 2호 갱도가 있었던 곳인데 수평 550m, 수직 380m까지 파 내려갔다고 한다. 구리광산을 지나 해안가로 내려가면 해녀들이 어구를 보관하고 잠수복으로 갈아입던 옛 해녀막사 터가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녀들이 직접 잡은 해산물을 즉석에서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했지만, 현재는 철거돼 막사터만 볼 수 있다. 지금부터는 오르내리는 길이 없이 그야말로 가벼운 산책이다. 구름다리를 몇 번 건너 아직 체력이 더 남았다고 생각하던 중 어느새 동생말 전망대에 도착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라고 했던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름 모를 꽃은 길 내내 함께하고 있었고, 스트레스를 날리는 시원한 파도 소리에 걷기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던 음악은 틀어보지도 않았다. 해파랑길 1코스의 끝인 해운대 미포까지도 걸어갈 수 있겠다 싶을 만큼 에너지도 넘친다. 괜히 답답하고 위로가 필요한 어느 날, 파도 소리와 초목이 함께하는 해파랑길을 걸어보자. 걷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더 넘치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은_naeun11@korea.kr